

집단교섭 협약서,

감당불가 과장말고 집단교섭 진전!



5월 22일(목) 2주 만에 집단교섭이 열렸다. 지난 주(5.15)는 사용자 워크숍으로 한 주 건너뛰었다. 4차 교섭에 사용자는 10개 사 19명, 조합은 16개 사업장 69명이 참가했다.

4차 교섭은 워크숍을 마친 사측이 의견을 모아 안을 제시하는 자리였으나 사측은 제시안 대신 교섭 당일 오전 집단교섭 협약서 요구에 관한 2차 질의를 보내왔다.

파국적 상황 막는 노력 필요

이규선 지부장은 “질의서를 또 보내셨는데 최소한의 검토 시간도 없었다. 긴 내용을 보니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조합도 꼼꼼하게 투쟁 준비를 해야하나 고민되는 내용이었다. 그래도 앞으로 교섭 기회 많으니 열심히 해서 파국적인 상황으로 가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충국 사용자대표는 “워크숍에서 예상대로 협약서 요구 관련 논란 많았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력해서 잘 마무리 하자”고 답했다.

협약서 관련 7개 질의 여전한 불가 입장

사측은 1)2020년 이후 집단교섭에 결합한 사업장에게 이전의 합의를 모두 수용하라는 것은 신의칙 위반 아닌가, 2)매년 합의하는 방식 아닌

협약서 체결을 통해 산별교섭의 비용과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3)후발 4개사에게는 교섭할 기회가 없었던 과거 합의를 적용하는 것은 기한 없는 채무의 즉시 이행 요구가 아닌가, 4)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 경영부담을 심화하지 않겠는가, 5)다른 사업장의 집단교섭 참가 문턱을 높이는 요구가 아닌가, 6)집단교섭 참가 사용자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것 아닌가, 7)각 사의 승인과 조율이 너무 어려워 불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7가지 질의를 자세히 설명했다. 질의의 형태를 한 수용불가 입장이었다.

산별교섭 진전, 협약서 가치

조합은 1)후발사업장도 2020년 결합 후 이미 5년이 지나 단체협약도 상당히 진전되어 충분히 논의 가능한 여건, 2)집단교섭 결합 당시 갱신 불가를 합의한 게 아님, 3)오히려 집단교섭 합류시 기존 합의 수용이 원칙이나, 사용자 여건을 고려해 보류한 것이었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4)‘파업의 위험’, ‘교섭의 부담’ 등 표현은 시민의 헌법적 권리인 노동3권을 부정하는 언사임을 지적했다. 또한 5)‘사용자 간 조율’의 어려움이 요구안 수용 불가의 사유가 되는 것은 산별교섭을 부정하는 것과 같음을 경고했다.

사용자 스스로 질의서에 쓴 것처럼 “합의사항의 협약서 형태로의 전환은 산별교섭의 발전과 확산에 큰 진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기지부 사용자협의회는 산별 교섭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도 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감당 불가? 세부 검토!

사측은 ‘조합 요구는 총 84개 조항의 일괄 수용, 2020년 이전 기합의만 따져도 50여 개’라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러 교섭위원들은 “과장이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업장 단협에 세세하게 반영해야 할 것들보다 사회적 책무에 관한 것이 많다. 선언적 문구, 이미 시효가 만료한 합의, 합의 후 세상이 많이 변해서 현행 법령을 밀도는 조항도 많다. 후발 사업장의 경우에도 집단교섭 합류 전에 이미 단협에 있던 내용이거나, 집단교섭 합류 후 사업장 단협에 이미 반영한 것도 많다. 실제로 쟁점이 될 것은 적다”며 사용자 주장의 과도함을 지적했다.

선 그으면 갈등, 방법을 찾자

2020년 집단교섭에 합류한 말레동현화성지회 이준희 지회장은 “산별교섭이 부담이나 위험인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 사업장만 봐도 집단교섭 혜택이 뚜렷하다. 원만한 노사관계, 예측가능한 경영환경, 노사 문화가 가장 큰 혜택”이라며 성숙한 노사관계를 발전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스제이엠 유상기 지회장은 “기존 6개사 역할 중요하다. 6개사 중에 후발 4개사보다 사업장이 작고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런 사업장도 집단교섭 합의 때문에 회사 안 망한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설득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선 지부장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인가 아예 수용 불가인가?”문자 사측은 “완전한 협약서 형태의 합의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각각의 조항에 대해 수용-수용불가-부분수용 등

으로 의견을 내면 기존 6개사에게는 기존협약 저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4개 사가 통으로 수용하는 방법 밖에 없어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교섭위원들은 “요구안에 대해 수정제시가 어렵다면 수용 가능한 부분을 먼저 정리해서 제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해나가자”는 등의 의견을 냈다. 어렵다고 먼저 선을 그으면 대화가 불가능하니 과정을 만들어가자는 거다.

거꾸로 교섭 용납 불가 차기에 안 내라

이규선 지부장은 “교섭할 시간은 많다. 파국으로 가지 않았으면 한다. 하지만 교섭을 거꾸로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지부는 반드시 협약으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차기 교섭에서 임금을 포함한 안을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사용자측 또한 “교섭 태도는 의심하지 말아달라. 성실하게 해나가겠다. 다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이해 바란다”며 교섭을 마쳤다.

5차 교섭은 5월 29일(목) 14시 에스제이엠에서 열린다.

교섭을 마친 교섭위원들은 말레동현화성 현장 순회를 하며 조합원을 만나 집단교섭 요구 등을 알린 후 **전체 교섭단 모임** 교육을 이어갔다.

『미국 관세전쟁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금속노조 정유림 정책국장이 강의했다. 강의를 끝난 후에도 러시아에서의 사업 전망, 관세 도입 후 변화가 이후 다시 회복될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